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김재업* · 김준범** · 장용언*** · 한기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청소년의 부모 학대경험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의표집을 통해 선정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청소년 쉼터 28개 기관(일시·단기·중장기 시설)을 중심으로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한 262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총 238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복피해를 경험한 가출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살생각 수준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피해는 공격성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출청소년이 경험한 폭력피해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 및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쉼터와 CYS-net과 같은 지역사회의 연계 아래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시한 다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는 등의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출청소년, 아동학대, 중복피해, 공격성, 자살생각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교신저자, woolalra@naver.com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 청소년쉼터 FOR YOU 생활지도교사, 공동저자

I. 서 론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운수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2008년부터 2013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1, 2012, 2013, 2014, 2015). 이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특히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대인 관계에 대한 분노 및 공격성에 기인한 동기가 주요 요인임을 감안했을 때(Glaser, 1981; Brent, 1987), 가정 및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중 폭력피해를 받은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공격성과 자살위험성이 매우 높은 집단(Yoder, 1999)이지만, 데이터 수집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이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2014)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11.0%)은 가출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가출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특히 가출 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으로서 전체의 약 4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부정적 환경은 연쇄적으로 학교 체계 내에서의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높는데, 이러한 폭력의 중복피해는 단일 피해 보다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이인선, 최지현, 2014; Lereya, Samara & Wolke, 2013). 특히 가출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향초, 2001;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Tyler & Cauce, 2002; Hawton, Saunders & O'Connor, 2012), 이러한 공격성은 청소년의 자살 촉발요인과 그 특성을 공유하여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ispert, Davis, Marsh & Wheeler, 1987; Yoder, 1999).

하지만 자살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기제로서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 펴보아 공격성과 자살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은 성인과는 대별되어 내현적 요인인 우울보다는 외현적 요인인 공격적 동기가 촉발되어 발생한다(Glaser, 1981; Brent, 1987; Garrison, McKeown, Valois & Vincent, 1993). Bowlby(1980)가 자살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 대상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도 자살의 촉발요인으로서의 공격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묘순, 서수균, 2014 재인용).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공격성과 자살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가출비행으로 외현화 된 가출청소년은 자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을 공산이 높다. 실제로 Yoder(1999)는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더욱 큰 원인은 바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에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밝혀진 것과 중복피해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중복피해는 단일 폭력 피해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며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차별적 접근에 근거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의 중복피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2.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 경험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 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과 자살생각

통계청(2015)에 의하면 2014년 청소년 중 7.9%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그 심각성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해체 및 보호자와의 갈등과 같은 가정 내적인 부정적인 요인(Jan, 2000)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정 내적 요인은 청소년의 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지영, 이경희, 2015; Bao, Whitbeck & Hoyt, 2000; Safyer, Thompson, Maccio, Zittel-Palamara & Forehand, 2004).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여성가족부, 2014)로서 정의되며 여성가족부(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 생애경험률은 전체의 11%에 이른다. 이러한 가출의 원인으로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전체의 4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가 8.9% 차지(여성가족부, 2014)하여 가출에 있어서 가정 및 학교 체계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겪은 가출청소년은 자살의 위험에 매우 크게 노출되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Gould et al.(1998)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자살생각 및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Van Orden et al.(2010)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에 의해 설명된다.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과 인지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자살에 대한 바람(Desire for Suicide)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아동학대로 가정 체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내현적 문제와 함께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외현적 문제의 발현으로 학교 내에서의 2차적 폭력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그리하여 가정 및 학교 체계 내에서의 폭력피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고, 이에 대한 불안은 부정적 자아 이미지의 내면화까지에도 이어져 스스로를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출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은 좌절된 소속감과 인지된 짐스러움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

폭력 피해에 관한 일반적인 선행연구들은 아동 학대, 학교폭력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가지 유형의 폭력 피해를 다루어 폭력의 중복 피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폭력은 단순히 한 체계 내에서만 분절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 아니며, 다수의 체계 내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Duncan, 1999). 특히 가출 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한 수준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der, 1999). 이는 청소년의 가출이 가정의 결손 및 부모와의 불화(Bao et al., 2000; Safyer et al., 200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Powers, Eckenrode & Jaklitsch, 1990; Whitbeck, Hoyt & Ackley, 1997)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학교 체계 내에서의 2차적 피해를 초래한다(이인선, 최지현, 2014; 김재철, 최지영, 2011; Safyer et al., 2004). 이는 아동 학대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을 가정 내에서부터 학습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초 훈련(basic training)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거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비행 집단과의 동일시를 하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Whitbeck & Hoyt, 1999). 실제로 2,12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복피해 경험을 연구한 이인선과 최지현(2014)에 따르면 한 체계 내에서의 폭력은 타 체계로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복피해 청소년의 공격성,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심리적 후유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중복피해가 학교 중도 탈락을 위시한 타 비행에도 노출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Moffitt(1997)은 가정 내에서의 학대 경험과 학교 체계에서의 비행, 그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경로를 ‘청소년 반사회성의 누적 연속성(cumulative continuity for antisocial young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Moffitt(1997)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있어서는 생애주기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발달과정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는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사회적, 행동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학습에 실패를 하고,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성공적인 소통의 수단으로서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낮은 학교 적응력 및 학업 성취도, 또래 및 교사로 부터의 거부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교 내에서의 적응문제는 비행 친구들과의 교제로 연결되어 비행행동에 대한 학습으로 이어진다(Dodge, 1983; Bao et al., 2000). 이러한 부정적 순환고리(Negative chains)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달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결국 어른들로부터의 통제를 벗어

나 청소년으로서 성인과 동일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극단적인(extreme) 비행 수단, 즉 가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Whitbeck & Hoyt, 1999).

3. 가출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살생각

자살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영향요인으로서 우울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김도희, 2015). 하지만 청소년기의 자살은 우울과 같은 내현적의 동기에서 발생하는 성인의 자살과 대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청소년의 특성상 청소년기의 자살 동기는 임상적인 우울이 관여된 경우는 매우 적으며(Glaser, 1981), 이보다는 가족, 친구 등 대인관계에 대한 분노나 보복의 의도와 같은 공격성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Brent, 1987).

이에 따라 공격성이 가출비행이라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현이 된 가출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자살위험도 더욱 높은 것이다(Powers et al., 1990). 실제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살생각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Beautrais, Joyce & Mulder, 1999; Bridge, Goldstein & Brent, 2006; Renaud, Berlim, McGirr, Tousignant & Turecki, 2008; Hawton et al., 2012; 박미정, 김희순, 박소미, 최지혜, 2011), 가출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Yoder(1999)는 가출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더욱 큰 원인은 높은 수준의 공격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요인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살생각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ltiala-Heino, Rimpela, Marttunen, Rimpela & Rantanen, 1999). 특히 폭력의 중복 경험은 공격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공격성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Yoder, 1999; Hawton et al., 2012). 실제로 가출청소년에게 자살생각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Yoder, 1999; Rew, Taylor-Seehafer & Fitzgerald, 2001)임을 감안한다면, 가출청소년 중에서도 중복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에 기인한 자살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연구한 김향초(2001)에 따르면 공격성이 외현화된 형태로서 나타나는 비행은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약물 비행 등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인명경시적이고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유발시키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일상화되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공격성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소로서 청소년의 자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Garrison et al., 1993; Renaud et al., 2008;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또한 박미정 외(2011)도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약 5배 높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를 겪은 가출청소년은 중복피해로 인해 공격성이 더욱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살생각의 위험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 자살생각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청소년 쉼터 28개 기관(일시·단기·중장기 시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8개 기관에서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38부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공격성과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인선, 최지현, 2014)와 가출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한다는 선행연구

(Yoder, 1999)를 근거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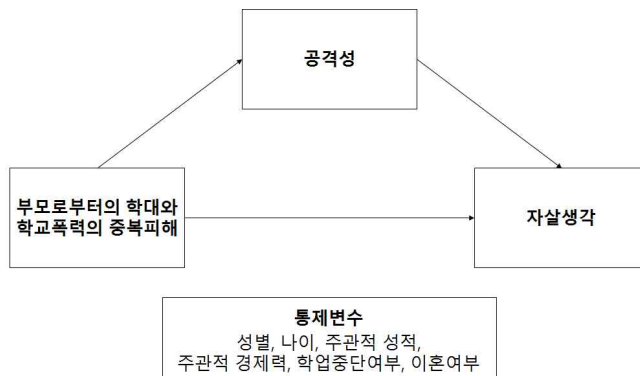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중복피해 경험

중복피해 경험은 지난 1년 간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자녀학대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rauss, Hamby, Finkelhor, Moore and Runyan(1998)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대, 경미한 신체학대, 심각한 신체학대 등의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문항으로는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 자신에게 부모가 행한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항목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변환하고, 해당 항목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사례를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가 있는 사례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8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Straus(1979)의 척도와 이순래(2002)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내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물리적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학교폭력 개념에 입각하여 8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없음”이 0점, 1년에 1-2회가 1점, 1년에 3-5회가 2점, 1년에 6-9회가 3점, 1년에 10번 이상이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를 학교폭력피해 사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2이었다.

2) 매개변수: 공격성

공격성은 Achenbach와 Edelbrock(1991)의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YSR)를 오경자, 홍강의와 이혜련(1997)이 수정 개발한 K-YSR 중 공격성 1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으로는 ‘남에게 못되게 군다’ ‘내 물건을 부순다’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등으로 응답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2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7로 나타났다.

3) 종속변수: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Harlow, Newcomb and Bentler(1986)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SI, Suicide Ide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이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이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5점에서 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8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 피해 외에 가출청소년을 위시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학업중단 여부, 가족

의 경제상태, 학교 성적, 가정형태 등이 있다(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Whitbeck, & Hoyt,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외에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업중단 여부, 주관적 경제력, 주관적 성적, 부모의 이혼 및 별거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직접조사를 통해 회수한 262부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호화 과정을 수행하고, 오류 검토 및 연구목적에 맞추어 SPSS 21.0을 이용하여 최근 1년간 가정 및 학교 내에서의 학대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238부를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공격성, 그리고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폭력경험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변수 간 경로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수행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출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청소년 116명(51.8%), 여자청소년 108명(48.2%)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Thornberry(1987)의 상호작용이론¹⁾에 근거하여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기, 중기, 후기청소년으로 구분했는데, 후기청소년(17세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55(7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기청소년(14-16세)이 63명, 초기청소년(13세 이하)이 5명(1.1%)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의 경우 재학

1) Thornberry, Interactional Theory. 1987.

중인 청소년은 162명(73.3%)이며,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59명(26.7%)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여부에 있어서는 이혼 및 별거가 104명(44.3%)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거 외(동거, 재혼)의 형태가 131명(55.7%)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인 경제 수준은 ‘중’이 77명(36.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중하’는 70명(32.7%), ‘하’는 49명(22.9%)으로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116	51.8	
	여	108	48.2	
	소계	224	100.0	
연령	초기(만 11-13세)	5	1.1	
	중기(만 14-16세)	63	28.6	
	후기(만 17세 이상)	155	70.3	
	소계	224	100.0	
학업중단	중 단(0)	59	26.7	
	재학중(1)	162	73.3	
	소계	221	100.0	
일반적 특성	학업성적	상	22	10.1
		상중	16	7.3
		중	41	18.7
		중하	49	22.4
		하	91	41.6
		소계	219	100.0
	이혼여부	이혼 및 별거(0)	104	44.3
		동거 외(1)	131	55.7
		소계	235	100.0
	경제적 상황	상	5	3.3
상중		11	5.1	
중		77	36.0	
중하		70	32.7	
하		49	22.9	
소계		214	100.0	

2. 주요변수별 실태

1) 독립변수 :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실태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을 가정 내에서의 학대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폭력피해도 당한 중복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최근 1년간 중복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67명(74.5%)인 반면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57명(25.5%)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의 양 체계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중복피해를 경험한 여자청소년이 35명(30.2%), 남자청소년 22명(20.4%)으로 나타났다.

표 2

폭력피해 유형별 실태

분류	경험빈도		
	전체 (n=224)	남자청소년 (n=108)	여자청소년 (n=116)
중복피해 경험 무	167명(74.5%)	86명(79.6%)	81명(69.8%)
중복피해 경험 유	57명(25.5%)	22명(20.4%)	35명(30.2%)

2) 종속변수 : 자살생각 실태

지난 1년 동안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실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 평균은 6.216(SD=8.273)점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청소년들의 평균은 3.390(SD=6.248)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9.027(SD=9.056)점으로 남학생의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자살생각에 따른 자살 시도 및 성공률은 남자청소년들이 높다는 선행연구(Hawton et al., 2012)를 감안하면 남자청소년도 간과할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출청소년의 폭력피해 유형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

년 집단의 자살생각 평균은 4.457(SD=7.639)점 인데 반해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의 단일 폭력피해가 있는 청소년은 5.844(SD=7.861)으로 나타났다.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평균이 10.615(SD=9.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중복피해 집단의 자살생각 수준은 무피해 및 단일피해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의 자살생각 실태

분류	자살생각 평균(표준편차)		
	전체(n=215)	남자청소년(n=105)	여자청소년(n=110)
자살생각	6.216(8.273)	3.390(6.248)	9.027(9.056)

표 4
폭력피해 유형별 자살생각 차이검증

종속변수	무피해집단(a) N=70	단일피해집단(b) N=103	중복피해집단(c) N=39	F	scheffe
	M(SD)	M(SD)	M(SD)		
자살생각	4.457(7.639)	5.844(7.861)	10.615(9.371)	7.532***	c > a,b

* $p < .05$, ** $p < .01$, *** $p < .001$

3) 매개변수 : 공격성 실태

가출청소년의 공격성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공격성 평균은 9.021(SD=6.724)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가출청소년의 공격성 평균 10.241(SD=6.952)점으로 나타나 남자 가출청소년의 평균 7.648(SD=6.35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폭력피해 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폭력피해가 없는 청소년의 공격성 평균이 7.432(SD=6.800),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단일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8.942(SD=6.622)로 나타났다.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평균이 11.704(SD=6.275)로 나타나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사후분석 결과 단일피해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표 5

가출청소년의 공격성 실태

분류	공격성 평균(표준편차)		
	전체(n=224)	남자청소년(n=108)	여자청소년(n=116)
공격성	9.021(6.724)	7.648(6.355)	10.241(6.952)

표 6

폭력피해 유형별 공격성 차이검증

종속변수	무피해집단(a) N=70	단일피해집단(b) N=103	중복피해집단(c) N=39	F	scheffe
	M(SD)	M(SD)	M(SD)		
자살생각	7.432(6.800)	8.942(6.622)	11.704(6.275)	5.756**	b, c > a

* $p<.05$, ** $p<.01$, *** $p<.001$

3. 연구모형 검증: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1) 1단계 분석: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은 0, 가정이나 학교에서 단일하게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을 1,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중복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2로 변환하여 연속변수화 하였다. 검증 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adjusted R^2 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모두 2미만(1.030-1.129), 공차한계는 모두 .5(.886-.971)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계수, 2008).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설명력은 15.2% (adjusted $R^2=.123$)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beta=-.29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여자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 수준이 남자 가출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중복피해 경험($\beta=.190$, $p<.01$)은 자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하여 중복피해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복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인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5.143	1.176	-.291	-4.375***
	나이	-.224	.315	-.046	-.711
	학업중단여부	1.719	1.263	.088	1.361
	주관적 성적	.230	.435	.035	.530
	주관적 경제력	-.123	.547	-.015	-.225
	이혼 및 별거 여부	.696	1.164	.039	.597
독립 변수	중복피해	2.412	.838	.190	2.878**
R^2				.152	
Adj R^2				.123	
F(Sig.)				5.251***	

* $p<.05$, ** $p<.01$, *** $p<.001$

2) 2단계 분석: 중복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adjusted R^2 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분산

팽창요인(VIF) 값은 모두 2미만(1.030-1.130), 공차한계는 모두 .5(.885-.973)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설명력은 8.6%(adjusted $R^2=.056$)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주관적 성적($\beta=.137$, $p<.04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중복피해 경험($\beta=.198$, $p<.013$)은 자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하여 중복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복피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인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1.783	.924	-.131	-1.930
	나이	.100	.248	.027	.402
	학업중단여부	1.052	1.002	.070	1.049
	주관적 성적	.696	.345	.137	2.014*
	주관적 경제력	.213	.429	.033	.497
	이혼 및 별거 여부	.370	.916	.027	.404
독립 변수	중복피해	1.931	.659	.198	2.930*
R^2				.086	
Adj R^2				.056	
F(Sig.)				2.825**	

* $p<.05$, ** $p<.01$, *** $p<.001$

3) 3단계 분석: 중복피해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adjusted R^2 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모두 2미만(1.030-1.217), 공차한계는 모두 .5(.822-.970)보다 큰 것으로 확

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독립변수인 중복피해가 공격성을 매개로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설명력은 28.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beta = -.244$,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중복피해는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개변수인 공격성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완전매개모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중복피해는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중복피해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변인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4.313	1.094	-.244	-3.943***
	나이	-.264	.290	-.055	-.911
	학업중단여부	1.113	1.170	.057	.951
	주관적 성적	-.074	.405	-.011	-.182
	주관적 경제력	-.307	.505	-.037	-.607
	이혼 및 별거 여부	.614	1.075	.035	.571
독립 변수	중복피해	1.364	.792	.107	1.721
매개 변수	공격성	.497	.082	.378	6.055***
R^2				.281	
Adj R^2				.253	
F(Sig.)				9.976***	

* $p < .05$, ** $p < .01$, *** $p < .001$

4) 4단계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신뢰구간 95%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중복피해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 결과와 간접효과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초 중복피해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beta=.190^{**}$)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공격성 변수가 투입이 된 후에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beta=.107$), 공격성을 통해서만($\beta=.378^{***}$)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복피해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중복피해 → 공격성 → 자살생각	.794	.357	.269	1.721

(N=192)

V. 논 의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요약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피해 유무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피해 집단은 공격성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복피해는 단일 폭력에 대한 피해 집단보다 부정적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지적인 선행연구들(Baldry & Winkel, 2003; 이인선, 최지현,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살생각 수준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폭력으로 발현되는 외현적 공격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공격성인 관계적 공격성의 발현정도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복피해를 경험한 가출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이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학교체계에서의 폭력의 중복 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는 선행연구(이인선, 최지현, 2014; Lareya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별차이에 따라서 여자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것은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국제, 국내적 추세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자살생각에 있어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통계청, 2014; Russell & Joyner, 2001) 을 의미한다.

셋째, 중복피해는 가출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폭력 피해는 공격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김재철, 최지영, 2011; Hawton et al., 20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여부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해체는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아동학대를 위시한 방임, 정서학대, 그리고 부부간 폭력 목격경험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재엽, 최권호, 2012) 이혼여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넷째,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는 공격성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복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기의 특성상 의미 있는 타자들이 존재해야 할 가정과 학교 양 체계에서의 폭력피해로 인한 좌절감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기 파괴적으로 발현되어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은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 가출시기가 빠를수록 가출 횟수가 높다는 연구(Whitbeck & Hoyt, 1999)

에서 나타나듯, 가출청소년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이에 대한 지지자원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가출은 학업중단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학업중단의 예비신호로서 제시되는 무단결석, 장기결석(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의 징후를 나타내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 학교사회복지사 혹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교육복지사)의 협력적 관계에 의한 다체계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중인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 높은 운용이 필요하다. 일부 청소년 및 학교에서는 이를 자퇴를 위한 절차로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학업중단 숙려제는 실제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학교 적응에의 동기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학업을 중단한 가출청소년의 발굴과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컴퓨터상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입소 후 연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정소연, 2014). 이에 이동버스 컴퓨터 등을 이용한 가출청소년의 발굴부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출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YS-Net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출청소년이 가정 및 학교에서 폭력피해 사실이 있는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이 나서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이 된 가출청소년에게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비행예방센터에서의 관리까지도 지속성 있는 연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피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는 횡수가 제한되어 있어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2014). 이에 따라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연속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청소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살은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격성에 근거한 분노 및 충동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컴퓨터를 위시한 청소년유관기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자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Nugent, Bruley and Allen(1999)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522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대체하는 프로그램(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인 'ART program'을 개발하여 분노 조절, 사회성 증진, 도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반사회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들보다 낮지만, 자살시도를 할 공산은 여자청소년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방식으로 공격성을 발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근본적으로 가정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 시에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기존에 가출청소년이 집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Yoder, 1999).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이 다시금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궁극적인 개입의 목적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편의상 조사대상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지 못하여 전국적 표본을 얻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였고, 가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집단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를 가출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양 체계에서 피해를 받는 중복피해 집단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복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성별차이에 따른 공격성 및 자살생각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집단, 그리고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경험 집단에게서도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배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를 당한 가출청소년의 공격성과 이에 따른 자살생각을 연구했지만, 정서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1회 이상 폭력 피해가 있는 것은 동일하게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폭력의 경중과 그 밖의 다른 특성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 경험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출청소년의 중복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성별차이에 근거한 연구, 중복피해라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및 일반청소년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

해의 인과관계 및 이로 인한 가출 혹은 반복가출로의 경로,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8). **New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도희 (2015). 부모의 학대와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1), 487-515
- 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2014).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영, 이경희 (2015).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J Korean Acad Nurs**, 45(5), 752-760.
- 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서울: 나눔의집.
-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3.
- 박미정, 김희순, 박소미, 최지혜 (2011).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7(4), 264-271.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1997).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래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정묘순, 서수균 (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2), 145-171.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222-251.
- 통계청 (2011, 2012, 2013, 2014, 2015).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Achenbach, T.,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ldry, A. C., &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for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6), 703-716.
- Bao, W. N., Whitbeck, L. B., & Hoyt, D. R. (2000). Abuse,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4), 408-420.
-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 (1999). Personality traits and cognitive styles as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ng peopl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1), 37-47.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 3)*. New York: Basic.
- Brent, D. A. (1987). Correlates of medical lethality of suicidal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6, 87-89.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72-394.
- Bridge, J. A., Reynolds, B., McBee-Strayer, S. M., Sheftall, A. H., Ackerman, J., Stevens, J., & Brent, D. A. (2015). Impulsive aggression, delay discounting, and adolescent suicide attempts: Effects of current psychotropic medication use and family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harmacology*, 25(2), 114-123.
- Duncan, R. D. (1999).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 Maltreatment*, 4(1), 45-55.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6), 1386-1399.
- Garrison, C. Z., McKeown, R. E., Valois, R. F., & Vincent, M. L. (1993). Aggression, substance use, and suicidal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3(2), 179-184.
- Gispert, M., Davis, M. S., Marsh, L., & Wheeler, K. (1987). Predictive factors in repeated suicide attempts by adolescents. *Psychiatric Services*, 38(4), 390-393.
- Glaser, K. (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3), 368-382.
- Gould, M. S., King, R., Greenwald, S., Fisher, P., Schwab-Stone, M., Kramer, R., & Shaffer, D. (1998).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9), 915-923.
- Harlow, L. L., Newcomb, M. D., & Bentler,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5-21.
- Hawton, K., Saunders, K. E., & O'Connor, R. C. (2012). Self-harm and suicide in adolescents. *The Lancet*, 379(9834), 2373-2382.
- Jan de Wilde, E. (2000). Adolescent suicidal behaviour: A general population perspective. In Keith Hawton, & Kees van Heeringen(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pp. 249-259). Shrewsbury: WILEY.
- Kaltiala-Heino, R., Rimpelä, M., Marttunen, M., Rimpelä, A., & Rantanen, P. (1999).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mj*, 319(7206), 348-351.
- Lereya, S. T., Samara, M., & Wolke, D. (2013). Parenting behavior and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and a bully/victim: A meta-analysis study. *Child abuse & neglect*, 37(12), 1091-1108.

- Moffitt, T. E. (1997).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7, 11-54.
- Nugent, W. R., Bruley, C., & Allen, P. (1999). The effects of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on male and female antisocial behavior in a runaway shelter.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9(4), 466-482.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Powers, J. L., Eckenrode, J., & Jaklitsch, B. (1990). Maltreatment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Child Abuse & Neglect*, 14(1), 87-98.
- Renaud, J., Berlim, M. T., McGirr, A., Tousignant, M., & Turecki, G. (2008). Current psychiatric morbidity, aggression/impulsivity,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5(1), 221-228.
- Rew, L., Taylor-Seehafer, M., Fitzgerald, M. L. (2001). Sexual abuse, alcohol and other drug use, and suicidal behaviors in homeless adolescent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4(4), 225-240.
- Russell, S. T., & Joyner, K. (2001). Adolescent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8), 1276-1281.
- Safyer, A. W., Thompson, S. J., Maccio, E. M., Zittel-Palamara, K. M., & Forehand, G. (2004).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runaway behavior: Problems and solu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5), 495-512.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Tyler, K. A., & Cauce, A. M. (2002). Perpetrators of early physical and sexual abuse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12), 1261-1274.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
-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s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4), 375-392.
- Whitbeck, L. B., & Hoyt, D. R. (1999). *Nowhere to grow: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NewYork: Transaction Publishers.
- Yoder, K. A. (1999). Comparing suicide attempters, suicide ideators, and nonsuicidal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1), 25-36.

ABSTRACT

The effects of the co-occurrence of child abuse and school victimization on the suicidal ideation among runaway adolescent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Kim, Jaeyop* · Kim, Joonbeom** · Jang, Yongeun*** · Han, Ki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occurrence of child abuse and school victimization on suicidal ideation of runaway adolescents, 2)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3) in order to elucidate implications for runaway adolescents. To achieve these aims, a total of 238 adolescents, residing in runaway shelters were utiliz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model analysis, making use of SPSS 21.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unaways who experienced the co-occurrence of victimization accounted for about 25% of the total. Second, they were found to have a greater tendency towards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aggression. Third, the co-occurrence of victimization among runaways increased suicidal ideation, and aggression was found to have a full-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runaways are discussed.

Key Words: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co-occurrence of victimization, suicidal ideation, aggression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6. 3. 14, 심사완료일: 2016. 3. 21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Professor

** Graduate School of Social Work, Yonsei Univ. Master Course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iduk Univ. Assistant Professor

**** Youthshelter FOR YOU, Guidance Counselor